

## 전국 건설현장 '우기 대비 점검' 추진

- 19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1,915개소 점검
- 굴착공사장·사망사고 100대 건설사 현장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다가오는 우기철 기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.
  - 이번 점검은 국토부(지방국토관리청),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\*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중인 도로·철도·아파트·하천공사 등 1,915개\*\*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.
    - \* 국토교통부, 5개 지방국토청(서울, 원주, 대전, 익산, 부산)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가철도공단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
    - \*\* 도로 192, 하천 46, 철도 169, 아파트·건축물 1,406, 공항 22, 택지 등 80
- 우선,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, 축대·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및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.
  - 특히, 도로·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,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, 아파트·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·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 공항 현장의 경우,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.
    - 하천공사의 경우, 하천 내 설치된 가도·가교의 시공 상태,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.
    - 아울러,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열 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\*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      - \* 작업중 물 섭취, 작업장소 근처 그늘 마련, 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옥외작업 최소화

- 이와 함께,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,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
  -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」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이행실태 확인 및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.
- 점검결과, 부실시공 및 안전·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·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동주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훈 (044-201-4593)
			주무관	서경원 (044-201-3586)